

불교종립대학 지방캠퍼스 신입생 대상 불교교양강좌 운영 연구*

정 귀 연**

동국대학교(경주)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불교종립대학인 'D'대학 지방캠퍼스 신입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불교 필수교양강좌의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실제 수업을 들은 학생들의 평가를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불교종립대학 지방캠퍼스 신입생 대상 불교교양강좌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불교교육이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어떻게 제시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불교대학 입학 후 1년 동안 필수적으로 수강하게 되는 불교교양 강의를 접한 학생들은 불교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을 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되는 긍정적 경험을 하였다. 또한 수강생들이 학습목표를 충분히 성취하고 '긍정적인 불교', '존경하는 불교 교수 상', '거룩한 스님 상'을 각인시키는 결과를 얻는 것은 불교종립대학에서 불교교양 강좌의 가장 큰 존재이유일 것이다.

따라서 강의 방식과 강의 내용, 교수 요인, 실생활 적용 전략까지 면밀히 계획하여 잘 구성된 불교교육의 제시라는 교육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가 교육의 가장 핵심적인 성공요인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핵심 주제어 : 불교종립대학, 지방캠퍼스, 대학신입생, 불교교양강좌

* 이 본문은 2016년 한국종교교육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임.

** 동국대학교(경주) 파라미타칼리지 초빙교수, cgy-33@hanmail.net

I. 들어가며

연구자는 불교종립대학 중 서울에 본교를 둔 지방캠퍼스에서 신입생 대상 학사지도 교수로 해마다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의 대학생활 적응과 대학시기 자기계발에 대한 종합적인 지도를 담당하는 일을 수년째 하고 있다. 대학신입생들은 입학 이후 달라진 환경에 대한 적응과정과 2학년까지 교양수업을 통해 전공학문에 적응하기 위한 학문적 체질개선 과정 또한 거치게 된다.

불교계 종립대학에서 시행되고 있는 불교교육은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종교와 불교 문화에 대한 교육, 교양교육이 목표로 하는 전인적 인간학으로서의 종교 이해를 통하여 학생들의 종교적 심성 계발과 도덕성 함양을 지향하는 종교성 교육, 불교신자 또는 불교에 귀의하고자 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으로 보다 깊은 불교의 교리 이해와 종교체험을 통하여 신심을 고취시켜 이상적인 불교인을 육성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미의 신자와 교육이 있을 수 있다. 어느 차원의 교육이든 궁극적으로는 종교적 인간 또는 불교적 인격을 지닌 인간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그러므로 불교종립학교에서 종교교육은 불교 사상과 문화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학생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과 올바른 인생관을 지니게 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¹⁾ 대학에서 교양교육이라 함은 넓은 의미로는 전인으로서의 인간형성을 목적으로 건전한 세계관과 인생관의 확립을 목표로 하는 전공 외의 교육을 이른다.²⁾ 좁은 의미로 보면 각 전공과 관련된 기초과목 내지 전공과목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주변학문과 관련된 교과목을 이르기도 한다. 따라서 불교교양강좌는 불교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면서 다른 전공과목의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과목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불교종립대학에서 시행되고 있는 불교관련 교양교육은 불교의 사상과 문화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학생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과 올바른 인생관 확립과 전공교과목의 성공적 수행에 기초가 되는 교과목으로 정리할 수 있다. 우리대학에서는 불교의 사상과 문화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삶을 성찰하고 건전한 인생관과 세계관을 확립할 수 있는 이론수업과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명상 수업 두 가지를 진행하고 있다. 물론 두 강좌 모두 학습자의 사고체계, 정서체계의 체질개선을 통해 이후 전공이나 삶에서의 적응에 긍정적 토대가 되기 위한 기초 작업이다.

지금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들은 1997년 IMF이후 양극화의 심화로 급변하는 사회환

1) 김용표, 「불교계 종립학교와 종교교재-불교교육과 보편적 종교교육과의 순환적 교육과정 구상」 『종교교육학연구』 제22권, 2006, 114~116쪽.

2) 김용정, 「대학의 교양교육과 종교」 『종교교육학연구』 제12권, 2001, 8쪽.

경 속에 태어나 인문학적 소양과 세계관이 자리하던 심리적, 정신적 자리에 과학기술적 세계관이 대체되고 있는 4차산업혁명의 시대를 이끄는 세대다. 이들은 전반적으로 교양교육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고 전공외의 수업에 거부감이 높은 편이다. 특히 학벌위주의 교육환경에서 조기교육의 대상이었으며 교육의 내재적 동기를 거의 경험하지 못한 비자발적 학습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필수로 들어야하는 교양교과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을 수밖에 없다. 더욱 우리대학은 불교종립대학으로 불교관련 필수 교양강좌가 마련되어 있다.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교양교육의 무용론을 펼치는 대학 신입생들에게 종교관련 필수 교양강좌는 자칫 종립대학의 건학이념과는 반대로 종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는데 일조를 할 수 있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수 년 간 학사지도 면담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해들을 기회가 많았던 연구자는 이러한 기우가 현실이 되는 다수의 사례들을 접하며 불교종립대학에서 필수 불교교양강좌를 개설한 목적이 제대로 성취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 보고 싶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불교종립대학인 'D'대학 지방캠퍼스 신입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불교 필수교양강좌의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실제 수업을 들은 학생들의 평가를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불교종립대학 지방캠퍼스 신입생 대상 불교교양강좌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수업을 직접 체험한 학생들의 생생한 피드백을 수집하였다. 자료 수집은 익명으로 시행되는 강의평가 시스템 중 서술형 평가 문항에 긍정적으로 답을 한 학생들의 피드백을 수집·분석하였다. 이는 강의에 만족도가 높은 학생들의 답을 통해 불교교양강좌의 만족도를 높이는 요인들을 추출하여 그 의미와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 성공적인 불교교양강좌의 구성과 운영방안을 찾는 본 연구의 주제와 부합되기 때문이다.

II. 불교종립대학 지방캠퍼스 신입생의 특성과 불교교양강좌의 운영현황

1. 불교종립 'D'대학교 지방캠퍼스 신입생의 특성

지방 캠퍼스는 대학이 지방에 위치해 있지만 서울에 본교를 둔 경우를 말하며 '80년대부터 가속화된 정부의 고등교육 보편화정책은 경쟁적으로 수도권소재 종합대학의 지방캠퍼스를 양산하였고 그동안 지방캠퍼스는 나름대로의 문화를 형성해 왔다. 그러나 여전히 이들 대학의 지방캠퍼스는 본 캠퍼스와의 물리적·심리적 거리감을 극복하

지 못하고 종속적·차등적 위상을 감수해야만 했다.³⁾ 송지은, 이광호(2017)의 연구에서 지방캠퍼스 신입생들은 서울에 있는 대학 입학의 목표로 입시준비를 했던 만큼 성적에 맞춰 지방 대학에 입학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⁴⁾ 또한 대학 선택도 부모나 선생님 등 타인의 의지에 의존한 경우가 많아 학교에 애정을 갖지 못하고 대학생활을 시작하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고 대학생활 적응에도 여러 가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릇된 사회적 인식, 취업의 차별성, 생활공간의 문제, 본교 캠퍼스로부터의 역차별, 다양한 문화접근의 한계, 본교 및 수도권소재 다른 대학으로의 편입을 위한 왜곡된 수강형태 등이 지방캠퍼스 대학생들의 스트레스의 출발점이라고 보았다(신태진, 2002).

송지은, 이광호(2017)의 연구에 의하면 서울지역 대학의 지방분교 대학생들은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입학하는 것을 목표로 입시준비를 혹독하게 했는데 지방캠퍼스에 입학하게 되어 아쉬움이 크고 서울소재 대학의 지방캠퍼스라는 이유로 스스로를 폄하한다. 입학 후 지잡대라는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에 시달리며 홀로서기를 위해 노력하지만 권위적인 교수, 과중한 역할, 군기문제, 심각한 통학문제 등 산적한 문제들에 분노마저 경험하게 된다. 가끔은 입학 전부터 편입을 생각하고 전과나 본교로의 편입을 꿈꾼다.⁵⁾고 하였다. 이는 'D'대학 지방캠퍼스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정귀연, 김세곤(2017) 연구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신입생의 면담주제를 분석한 연구에서 학생들은 외재적 가치를 추구하느라 내적 가치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높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안전하고 익숙한 환경으로의 회귀 성향을 보였다고 한다. 또한 대기업이나 전문직 취업을 위한 스펙 쌓기 방법이나 편입이나 캠퍼스 간 이동제도, 재수나 편입 등의 학벌선택방법, 목표나 전공에 대한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⁶⁾

물질만능주의, 서열화의 시대에 지방캠퍼스 신입생으로 대학생활을 시작한다는 것이 학생들에게 주는 의미는 결코 낙관적이거나 긍정적인일 수 없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존감이 낮고 열등감에 시달리며 의욕이 떨어진 상태이다. 그들이 겨우 의욕을 내게 되는 경우는 편입이나 캠퍼스 이동, 재수나 반수라는 목표가 있을 때이다. 물론 대학 졸업 이후의 비상을 꿈꾸며 다양한 스펙 쌓기에 열중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외적 가치 추구로 인한 불행감, 급변하는 세계 미래 불확실성에서 오는 불안, 심리적 의존 상

3) 신태진, 「수도권 소재 종합대학 지방캠퍼스 대학생들의 스트레스 요인 및 유형에 대한 조사연구」 『연세대학교 교육연구소 보고서』, 1, 2002, 55쪽

4) 송지은, 이광호, 「대학 지방캠퍼스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청소년학 연구』 제 24권, 제 4호, 2017, 117쪽.

5) 송지은, 이광호, 위의 글, 117-119쪽

6) 정귀연·김세곤, 「양극화 시대 불교종립대학 신입생 불교교육의 역할과 방향」 『종교교육학연구』 제53권, 2017, 41쪽

태 등의 비교적 공통적인 심리상태를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심리적 특성을 가진 불교종립대학의 지방캠퍼스 신입생들에게 불교교양강좌는 불교종립대학 건학이념의 지향성과 지방캠퍼스 신입생의 특성, 그리고 불교를 기반으로 하는 필수 교양강좌의 교육목적이라는 세 가지 요소의 복합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게 된다. 불교종립대학의 지방캠퍼스에 입학한 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불교교양강좌를 구성하고 운영한다는 것은 이렇게 얽혀있는 각 각의 요소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적절한 교과목을 만들고 교육목표를 최대한 성취하기 위해 시행되는 전반적인 노력들이 모두 포함된 포괄적인 의미이다.

2. 'D'대학교 지방캠퍼스 신입생 대상 필수 불교교양강좌 운영현황

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은 종교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인류의 문화를 새롭게 읽고 현실적인 삶의 복지를 위하여 그러한 문화현상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를 터득하게 하는 것으로 그 차별성을 드러내지 않으면 안 된다.⁷⁾ 따라서 종교교육의 방향은 교도를 확보하기 위한 교화중심의 종교교육을 지양하고 종교에 대한 건전한 상식을 지닌 교양인을 양성하기 위한 종교교육을 지향해야 한다. 중요한 문제는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이다.⁸⁾ 종교교육은 특정 종교에 대한 강제적, 주입식 교리 전달이 아니라 보다 자발적이고 선택적인 체험의 기회가 되도록 이루어져야 효과적이다. 지방캠퍼스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는 불교교양강좌는 외재적 가치를 지향함으로써 불안과 불행감을 경험하는 지방캠퍼스 신입생들의 특성들을 고려하여 자신을 둘러싼 물리적 환경의 유한함과 무상함, 한계성을 깨달아서 삶의 진정한 가치를 내면화하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주변 환경에서 부여한 자신의 틀에서 벗어나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게 하는 교육이어야 하며 세상의 주체자로서 자신을 인식함으로써 막연한 불안에서 해방되는 교육이어야 한다.⁹⁾

'D'대학 지방캠퍼스에서는 1학년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불교교양강좌인 「불교와 인간」, 「자아와 명상1」, 「자아와 명상2」 총 세 강좌를 필수교과목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불교와 인간」은 불교와 관련된 이론을 주로 교수하는 강좌이고 「자아와 명상」은 불교의 실체와 관련된 강좌로 분류해 볼 수 있다.

두 교과목에서 다루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강의 방식이나 운영 현황, 그리고 수

7) 정진홍, 「제 7차 교육과정과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 제 13권, 2001, 12쪽.

8) 박희중, 「원불교에서의 종교교육과 인권」 『종교교육학연구』 제39권, 2012, 85쪽.

9) 정귀연, 김세근, 앞의 글, 45쪽-47쪽.

강생들의 평가를 분석하여 양극화의 영향으로 불안과 긴장, 불만족, 타인과 자기 불신에 시달리는 대학신입생들을 위해 종립대학이 제공할 수 있는 불교교육의 역할과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6년 1학기, 2학기 「불교와 인간」, 「자아와 명상1」, 「자아와 명상2」의 강의 평가 중 서술형 문항에 참여한 수강생의 평가를 분석하였다. 참가 인원은 「불교와 인간」 302명, 「자아와 명상1」, 「자아와 명상2」 649명이었다.

1) 「불교와 인간-불교 관련 이론」교과목의 운영현황

「불교와 인간」은 불교라는 인류 문명의 정신적 자산을 중심으로 인간을 이해하고 인간 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불교적 관점을 통해 그 해결책을 모색하고 탐구하는 강좌로 불교에 대한 기본적 특징과 세계관, 까르마, 연기론, 윤회, 해탈, 사성제와 같은 불교의 핵심 개념에 대한 바른 이해 및 우리 삶 속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의 불교적 해결책 모색 등의 강의 목표를 표방하고 있다.

「불교와 인간」 교과목은 공통교양으로 졸업까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과목이다. 1학년 개설 강좌로 2학점으로 운영되고 있다.

본교과목의 2016학년도 학습주제를 살펴보면, 종교로서의 불교의 의미를 이해하고 불교의 창시자인 붓다의 생애, 오온 12처 18계를 통한 존재의 의미 이해, 올바르게 현실을 인식하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사성제를 통해 배우게 된다. 그리고 연기, 업과 윤회의 개념, 6바라밀의 실천을 통한 올바른 인간상 정립, 불교적인 삶의 방식의 이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자아와 명상-불교의 실제와 관련」강좌의 운영현황

「자아와 명상」교과목은 ‘참된 자기’의 발견을 통해 진정한 삶의 목표와 가치로운 행동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강좌로써 자신을 성찰하는 여러 방법들을 살펴보고 불교의 명상방법을 이해하고 좌선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방법을 습득, 자기 성찰의 기회를 가짐으로서 바람직한 가치관과 삶의 방향을 정립하도록 돕는 것이 강좌의 목표이다.

「자아와 명상」교과목은 공통교양 강좌로 1학년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1학기 및 2학기 각 1학점으로 강의실이 아닌 생활법당에서 진행되는 교과목이다. 평가는 중간, 기말과제로 대체되며 P/F과목이다.

주별 강의 내용을 살펴보면, 1학기 「자아와 명상1」에는 삼귀의와 사홍서원의 의미, 스님에 대한 기본적 예절, 명상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불교신자로서의 마음가짐과 올

바른 태도, 보살심과 보살행을 통한 불교의 사회적 역할 수행, 불교에서 세상의 형성과 구성을 바라보는 관점과 불교의 계율 등 불교의 기본교리와 실천 행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좌선법에 대한 이해 및 실습이 이론 수업과 병행되어 매 시간 진행된다. 2학기「자아와 명상2」에는 명상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이해와 더불어 명상수행의 구체적인 방법과 다양한 명상의 유형, 일상에서 명상의 실천방법과 명상과 심신의학에 대한 이해들로 구성되어 있다. 1학기는 기초 불교교리와 명상수행의 기본 개념과 이해, 2학기는 명상의 실제와 명상 수행의 종류와 현대적 의미 이해에 초점이 맞춰져 진행되고 있다.

Ⅲ. ‘D 대학’ 지방캠퍼스 신입생 대상 필수 불교교양강좌 운영결과

1. 「불교와 인간」 교과목에 대한 수강생 평가

불교관련 필수 교양강좌, 「불교와 인간」교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 중 서술형의 평가 문항을 크게 수업진행방식, 강의 내용, 교수요인, 영향요인으로 분류해서 살펴보았다. (〈표 1~4〉 참조).

1) 수업진행 방식에 대한 평가

「불교와 인간」 교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강의 평가를 수업에서 사용하는 매체와 시험형식, 수업과정, 난이도순으로 분류해서 살펴보았다. 먼저 강의 내용 전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매체를 사용함으로써 수강생들의 집중도를 높였고 그에 따라 관련 영상과 그림, 또는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학생들과 상호작용하는 등 수강생의 입장에서 강의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교수의 노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졌다. 본 강좌는 2학점의 상대평가 적용 과목으로 학생들이 시험에 대한 중압감이 높을 수 있는데 과감히 open-book형식의 시험을 실시함으로써 교과목 본연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었고 학생들이 편안하고 부담 없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었다. 또한 주교재를 이해하기 쉽게 요약하여 ppt자료를 만들고 이를 수업 전에 올려 학생들이 교재와 수업자료를 병행해서 활용할 수 있게 하였고 단순한 교재요약에서 그치지 않고 중간 중간 빈 칸을 만들어 수업시간에 퀴즈형식으로 풀게 하였으며 빈 칸을 채운 자료를 시험에 반영하였다. 이러한 수업자료의 활용은 수업자료 준비율을 높이고 자료를 준비한 학

생들은 수업 중에도 적절한 긴장감과 성취감을 느끼며 수업에 집중할 수 있었다. 자칫 무겁고 어려울 수 있는 불교관련 지식을 쉽고 가볍게, 그리고 실제적으로 접근함으로써 불교도에게도 불교도가 아닌 수강생에게도 만족스러운 수업이 되었다(〈표 1〉참조).

〈표 1〉 수업 진행 방식에 대한 평가

	평가 내용
매체	- PPT자료, 동영상, 그림, 영화, 스마트폰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의 집중도를 높임
시험	- 오픈북 형식으로 진행되어 학생들이 부담 없이 편안하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함(수업 참여율을 높이는 방법)
수업 과정	- 수업자료를 미리 e-class에 올린 뒤 자료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그 자료에 빈 칸 문제를 제시하여 집중도를 높임(이 자료는 이후 시험에 활용 됨) - 성실했고 짜임새 있는 수업, 논리적으로 잘 설명된 수업으로 만족도가 높음
난이도	- 학생들의 욕구와 수준에 맞춰 재미있고 이해하기 쉽게 수업이 진행되었고 딱딱할 수 있는 불교이론을 가볍고 편안하게 설명하여 불교도가 아닌 학생들도 거부감 없이 들을 수 있었다.

2) 수업내용에 대한 평가

강의 내용에 대한 수강생들의 평가내용을 살펴보면, 불교에 관심이 없었던 학생들의 경우, 불교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불교가 어떤 종교인지 정확히 이해하게 되었다. 불교교리를 통해서 세상을 바르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수업 중 실시했던 명상을 통해 자신을 성찰할 수 있었다는 평가 등의 불교관련 내용들이 있었으며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삶의 지혜를 알려주었으며 수업을 통해 마음이 가벼워지고 차분해지며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으며 학생들이 정말로 배워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 수업이라는 평가가 있었다(〈표 2〉참조).

〈표 2〉 강의 내용에 대한 평가

	평가 내용
불교 관련	- 불교에 대해 평소 관심이 없었는데 교수님 덕분에 불교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다. - 불교에 관한 전반적인 것부터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르고 살았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고찰할 수 있었던 좋은 수업이었다. - 명상을 시간을 하시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해 주셨다. - 불교에 대한 지식들을 잘 가르쳐 주신다. - 학생들이 불교란 어떤 종교인가에 대한 답을 시원하게 알 수 있었던 알찬 수업이었음.
그 외	- 단순한 강의를 넘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삶의 지혜를 알려주셔서 인상적이었다. - 한 학기 동안 지식을 많이 배웠다. - 이 시대의 바쁜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강의였지 싶다. 지친 몸을 이끌고 마지막 불교수업을 들으러 올 때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차분해지면서 내 생각을 정리하고 무언가를 깨닫게 되는 그런 강의다. - 저희 같은 학생들이 정말로 배워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셨다.

3) 교수 요인에 대한 평가

교수요인 평가 내용을 보면, 학생들은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강의를 준비하고 수업 중에 항상 친절하고 차분하게 학생들을 잘 보듬어주는 따뜻한 교수이며 어려운 내용도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게 적절한 목소리와 정확한 발음으로 설명해준다고 평가했다(〈표 3〉참조).

〈표 3〉 교수 요인에 대한 평가

	평가 내용
성격	- 교수님은 맡은바 최선을 다하셨다. - 친절하신 교수님과 함께한 좋은 수업이었다. - 교수님의 차분한 강의가 인상 깊었다. - 학생들을 잘 보듬어줌
준비도	-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해 온다. - 질문에 성의껏 답해 줌 - 충분히 자료를 준비해서 수업에 활용함
능력	- 어려운 개념을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게 설명을 잘 해준다. - 목소리가 크고 발음이 정확해서 귀에 쏙쏙 들어 옴

4) 수강생의 변화

수강생들은 본교과목을 통해 불교를 보다 잘 이해하고 불교에 흥미를 갖게 되었으며 쉽게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수업을 통해 개개인의 인성이 함양되었고 진짜 인생에 대해 배우고 인생관을 새롭게 설계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평가했다(〈표 4〉 참조).

〈표 4〉 수강생의 변화

	평가 내용
불교 관련	- 불교에 대해 멀고 어렵게만 느껴졌지만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수업이었다. - 불교와 인간은 인성교육에 매우 유익 하였다. 또한 불교의 대해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 덕분에 불교 공부가 재밌어졌다. - 평소 불교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이 강의를 통해 불교에 관심을 갖고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되었다. - 불교수업을 들으면서 불교가 무엇인지 더욱 심오하게 알 수가 있게 되었다. - 불교에 대해 흥미를 느낄 수 있었다. - 불교와 인간 수업을 듣고 조금 더 마음이 편해진 거 같다.
그 외	- 교수님 덕분에 진짜 인생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되었다. - 학생들 개개인에게도 인성이 향상되리라 생각한다. - 명상을 하면서 인내를 기를 수 있었다. - 내 인생관을 다시 설계하게 되는 귀한 수업이었다. - 저희에게 있어서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이었다. - 교수님 말씀 깊이 새기어 앞으로도 부단히 노력하겠다.

2. 「불교와 인간」 교과목에 대한 이해

지금까지 살펴본 「불교와 인간」 교과목에 대한 수강생들의 평가에 대해 분석해봄으로써 교과목 평가결과에 나타난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겠다.

1) 수업 진행방식

학생들은 강의 중심의 일방적 지식전달식 수업에 수동적이고 비자발적인 학습자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어떤 의미로 그러한 수업은 학점만 따면 된다는 대부분의 학생들의 욕구에 부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학생들의 수동성과 비자발성을 강화하는 역할

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학습동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반면, 본 강좌는 학생들의 관심과 능동적인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교수매체를 사용함으로써 처음에는 저항이 있을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진정한 학습자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다.

2) 강의 내용

불교관련 교양강좌이지만 최근 이슈가 되는 현상과 사회적 이슈를 심도 있게 다루면서 불교적 해석의 틀을 제시하는 수업내용은 학생들로 하여금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게 하였다. 학생들은 교수가 제공한 다양한 관점들을 통해 자신과 세계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3) 교수요인

아무리 좋은 강의 내용도 누가 전달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가르치는 학습내용보다 가르치는 교수자의 요인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나타내 주는 대목이다. 마찬가지로 따뜻하고 친절함 인품을 가진 교수가 전달하는 학습 내용만이 학생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강력한 힘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또한 단순히 인품이 좋은 교수만이 아니라 가르치는 분야의 전문성이 검증된 교수가 수업내용을 잘 정리해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강의를 제공했을 때 진정한 학습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4) 수강생의 변화양상

학생들의 능동적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수업 매체나 내용을 잘 구성한 친절하고 전문적인 교수가 진행한 강의를 수강한 학생들은 불교에 대해 더 정확하게 더 많이 알게 되고, 나아가 자신과 세계에 대해서도 새로운 가치관과 인생관을 갖게 되었다. 학습을 통해 불교에 대해 긍정적인 경험을 한 학생들은 이후 자신의 삶 속에서 꾸준히 불교적 삶을 실천하게 될 것이며 그동안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봄으로써 수강 전보다 훨씬 더 성장한 자신을 만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자아와 명상」 교과목에 대한 수강생 평가

불교관련 필수 교양강좌, 「자아와 명상」 교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 중 서술형의 평가 문항을 크게 수업진행방식, 강의 내용, 교수요인, 영향요인으로 분류해서 살펴보았다. (〈표 5~8〉 참조).

1) 수업진행 방식에 대한 평가

「자아와 명상」에 대한 학생들의 강의 평가를 수업에서 사용하는 매체와 시험형식, 수업과정 등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하였다. 학생들이 가장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수업 매체는 법당이라는 공간이다. 학생들에게 법당은 체조도 하고 명상도 하고, 때로는 둘러 앉아 도란도란 수다도 떨 수 있고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편안하고 다정한 곳으로 비춰지고 있다. 그리고 학생들은 대부분의 교과목이 상대평가로 학점을 받기 때문에 각 교과목마다 긴장되어 부담감이 많다. 하지만 「자아와 명상」은 P/F로 진행되어 부담 없이, 그래서 더 자발적으로 수업에 참여한 것으로 평가된다(〈표 5〉 참조).

〈표 5〉 수업진행 방식에 대한 평가

	평가 내용
매체	- 전반적으로 신선한 강의였고 건강체조 역시 신선했습니다. - 쉬어가는 강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단기출가학교를 다룬 동영상 등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강의 - 일단 부담이 없었고 법당에서 체조도 하고 명상도 하여 마음이 차분해지고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수업이었다. - 강의시간에 한 체조가 인상 깊었고 교수님께서 가끔 누워서 명상도 시켜주시고 여러 가지로 강의를 들으면서 편안했던 것 같다. - 편안하게 앉아서 이야기 듣고 대화하는 수업이다 보니 편하고 좋았다
시험	- 이 강의의 과제를 통해 나를 돌아볼 수 도 있었고, - 이 수업은 시험이 없고 출석만 잘하면 되는 거여서 맘 편히 수업에 참여할 수 있었고 수업자체만으로 힐링이 되었다.
수업과정	- 공부를 하는 다른 강의와는 달리 약간의 쉬는 시간을 가지는 것처럼 짧은 시간의 명상과 불교정신에 대한 약간의 강의는 마음을 놓고 수업을 들을 수 있다 - 수업이 대체로 자유로운 분위기였고 학생들이 잘 참여하는 강의였다. - 학생들과 상호작용하여 요구하는 바를 잘 들어주셨습니다.

2) 강의 내용에 대한 평가

학생들은 불교에 대한 기본적인 앎의 유무와 상관없이 「자아와 명상」 교과목을 통해 불교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심신을 달랠 수 있었고 힐링의 시간이 되어준 수업, 명상을 통해 마음을 단련할 수 있었던 수업으로 평가하고 있다(〈표 6〉 참조).

〈표 6〉 강의 내용에 대한 평가

	평가 내용
불교 관련	- 명상을 통해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강의였습니다. 불교에 대해 더 알게 되는 강의였다. - 힐링이 되는 시간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교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까워지고 알게 되는 시간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 'D'대학교는 불교대학교이고 나는 종교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종교이든 익숙하지 않은데 불교에 관련하여 많은 것을 알게 해주셨고, 지친 심신을 달랠 수 있었던 좋은 수업이었다. - 타종교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좋았다고 느낄 정도로 불교에 대한 좋은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그 외	- 스님께서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라고 했을 때 처음에 반신반의 했지만, 이내 알 수 있었습니다. 자아와 명상이라는 강의는 정신과 육체를 회복시키는 강의라는 것을... 감사합니다. - 바쁜 대학생활 중 쉴 수 있는 시간인 거 같다. - 명상을 통해 나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고 마음도 편안해 지는 시간이다. - 솔직히 학교생활 쫓겨하기만 하고 지치기만 했다. 이 수업을 듣는 동안 부담없이 가서 부담없이 수업을 들었다. 이 수업은 힐링이 되었던 수업이었다. - 이 수업을 들으면서 명상이라는 것에 대해 좀 더 다가갈 수 있었고 그러므로 내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알 수 있었다. - 명상을 함으로써 내 자신에 대해 생각해보며 하루일과를 끝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 자아와 명상은 교과 수업이 아닌 좀 더 다른 의미로 생각하였고 정말 강의를 하는 동안 심신수련이 되는 것 같아서 좋았다. - 몸과 마음이 차분해지는 시간이었고 명상할 때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서 좋았다.

3) 교수 요인에 대한 평가

정성과 사랑을 다해 친절하게 강의를 진행하는 교수-스님을 통해 학생들은 따뜻하고 신뢰롭고 호감이 가는 '스님 상'을 정립하게 된다. 그리고 학생들은 불교에 대한 학문적 지식을 겸비한 상태에서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모습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표 7〉 참조).

〈표 7〉 교수 요인에 대한 평가

	평가 내용
성격	- 사실 살아오면서 스님을 접해본 적이 많이 없어 거리감이 있었지만, 따뜻한 인간미로 수업을 진행해주셔서 매주 기다려지는 수업이었다. - 스님에 대한 신뢰도와 호감이 생겼고 수업을 열심히 듣지 않는 학생도 정성과 사랑으로 이끌어주심 - 늘 웃으면서 학생들을 대해주셨고 - 교수님께서 강압적이거나 화내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평화롭고 안락하게 대해주셨다. - 교수님이 학생들에 대한 관심이 극진하다. - 진짜 너무 좋았어요, 불교의 마음이란 이런 것인가..를 교수님 보면서 느꼈답니다.
준비도	- 수업준비를 항상 철저히 준비하셨고 쉽고 이해가 잘 되게 설명해주셨다 - 교수님께서 수업준비를 충실히 하여, 강의를 듣는데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능력	- 스님이시라 그런지 불교에 대해 잘 아시고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 주신다. - 여러 가지 질문 많이 해서 좋았다 - 교수님이 수업에 열중하시며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쳐 주셨다. - 특히 목소리가 듣기 좋아 수업할 때도 힘들지 않았다.

4) 수강생의 변화

학생들은 「자아와 명상」 교과목을 수강한 후 마음의 안정을 얻고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게 되고 마음과 몸의 컨디션이 좋아지면서 사람들에게도 상냥한 태도로 대하게 되었다. 그리고 선을 통해 행복감을 갖게 된 경험을 되살려 일상에서도 명상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다(〈표 8〉 참조).

〈표 8〉 수강생의 변화

	평가 내용
변화	- 명상을 통하여 마음의 안정을 얻어 나의 심리를 잘 다스릴 수 있게 되었다. -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구나’, ‘~겠지’, ‘감사’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좋지 못한 일이 생겨도 스스로 마음을 가라앉히면 큰 화로 이어지지 않고 잘 해결된다는 가르침이었다. 나는 교수님의 조언을 본받아 사소한 문제에도 짜증을 내던 행동을 고쳤고, 그 결과 마음이 평화로워져 평소보다 더 컨디션도 좋아지고, 사람들에게도 상냥하게 대할 수 있게 되었다. - ‘오늘 나에게 행운이 있을 것이다’라고 아침마다 되뇌이면 정말 하루가 행복해진다고 교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을 매일매일 실천했다. 그래도 힘든 하루가 찾아오겠지...하면서도 아침마다 되뇌었는데 정말로 한 학기동안 마음 아픔 없이 하루가 정말 정말 행복했다. 가르쳐주신 것 무궁하게 쓸 것이고 가르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명상하는 시간이 나에게 많은 행복감을 주었다. 지금도 명상을 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 단순한 강의를 넘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삶의 지혜를 알려주셔서 인상적이었다. - 바쁜 학교생활 속에 짧은 시간이지만 숨 돌릴 수 있는 수업이었다. 평소에도 명상하는 시간을 가지곤 한다.

4. 「자아와 명상」 교과목 평가에 대한 이해

「자아와 명상」 교과목에 대한 수강생들의 평가에 대해 분석해봄으로써 교과목 평가 결과에 나타난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강의 방식

‘법당’이라는 장소는 일반적으로 성스럽고 조용하고 정적인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 「자아와 명상」은 ‘법당’이란 공간적 의미를 재해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강의가 진행되는 법당은 책상과 의자가 없고 방석이 놓인 좌식 공간으로 바닥에 엉덩이를 대고 앉는다는 방식 자체가 주는 안정감과 편안함이 학생들의 몸과 마음을 이완하게 한다. 또한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명상과 선 체조, 토론식 강의, 동영상시청 등의 활동은 학생들에게 ‘법당’은 편안하고 친근한, 그리고 이야기와 소통이 존재하는 새로운 커뮤니티의 장소로 재탄생하였다. 때로는 명상의 장소, 때로는 강의실, 때로는 사랑방 등 학생들이 하고자하는 어떤 활동이든 가능한 공간이 되었다.

고전적 조건형성에서 연합의 힘은 매우 강력해서 정서까지도 학습시킨다.¹⁰⁾(신현정, 김비아 역, 2016년). ‘법당’과 즐거운 추억이 연합된 결과 ‘법당’은 불교예식이 거행되는 성스럽고 현실세계와 동떨어진 공간이 아니라 학생들이 언제든지 찾아가서 쉬고 놀고 함께할 수 있는 친근한 공간의 의미로 다가오게 되었다.

또한 P/F방식의 평가가 주는 안정감과 편안함은 다른 강좌에서 주는 부담감과 비교되어 상대적인 강좌에 대한 호감지수를 높이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평가의 부담에서 자유로워진 학생들은 오히려 수업에 더 집중할 수 있었고 집중하는 만큼 수업 내용들이 더 잘 이해되었을 것으로 해석된다.

2) 강의 내용

요즘 대학생들은 대부분 신입생 때부터 일찍 진로를 선택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한 진로계획을 세워 꾸준히 스펙을 쌓아가야 적응적인 대학생활로 평가되는 환경에서 오는 과중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신입생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자아와 명상」수업은 평가에서도 자유롭고 명상위주의 내용으로 수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몸과 마음이 편히 쉴 수 있는 강의였던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관념적인 불

10) David G. Myers, C.Nathan DeWall 지음, 신현정, 김비아 옮김, 『마이아스의 심리학』 (서울: 시그마프레스, 2015), pp.312-313.

교교리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일상적이고 보편화 된 명상과 선 체조 위주로 구성된 강의는 불교도뿐만 아니라 불교도가 아닌 학생들에게도 거부감 없이 수용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교수요인

우리 대학은 불교종립대학으로써 캠퍼스 곳곳에서 승복을 입은 승려들이 눈에 띄지만 막상 일반학생들에게는 여전히 승려는 성스럽고 우리와는 거리 먼 존재로 느껴진다. 신입생들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자아와 명상」 강좌는 스님이 진행하기 때문에 우리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들은 적어도 1년 정도는 수업에서 스님을 만나게 되는 셈이다. 따라서 학생들은 「자아와 명상」 강좌를 진행하는 스님을 통해 실질적인 ‘스님 상’을 형성하게 된다. 다행스럽게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친절하고 따뜻한, 그러면서도 학식이 높은 스님을 「자아와 명상」을 통해 만나게 되고 궁극적으로 「자아와 명상」은 평생에 남을 기록하고 따뜻한 ‘스님 상’을 가슴에 새기는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4) 수강생의 변화양상

편안하고 부담없는 수업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제공하고 이렇게 자신을 성찰하는 기회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과 타인,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즉, 「자아와 명상」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환경에서 준 세계관과 가치관을 수동적으로 동일시했던 결과 형성된 그동안의 가치관을 반성하고 자신의 삶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찾아나서는 출발선을 통과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선과 명상을 통한 심신단련의 경험은 수강생들이 이후 자신의 인생에서 심신의 건강과 안녕을 도모할 수 있는 수행방법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고 이는 본 강좌의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존재이유이기도 하다.

IV. 불교교양강좌 수강생들의 평가결과에 대한 논의 및 시사점

1. 불교교양강좌 수강생의 평가결과에 대한 논의

강좌를 수강하기 전, 신입생들은 낯선 대학생활(교과·비교과 수업, 학과 교수·선후

배·동료관계, 동아리, 객지생활)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긴장감이 팽팽하게 유지되는 상태로 두 교과목에 참여하게 된다. 불교 공통교양 강좌 수강 후 학생들의 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그 의미를 논하면 다음과 같다.

1) 불교에 대해 올바르게 알게 되었다

윤세원(2012)은 근대화 과정에서 대부분의 자유진영 신생국들과 같이 우리가 건설하고자 한 국가의 역할모델이 미국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전통적인 관행들이 무시되거나 저급한 것으로 매도되는 경향의 대착지점에 불교가 위치하게 된 것, 불교적 가치들의 사회적 가치로의 전환을 위한 지적 매개 작업이 부족했던 점, 사고, 제도, 의식 등에서 불교계가 자기변신을 이루어내지 못했던 점 등의 이유로 불교는 추구하는 가치들이 실현되지 못하는 방향으로 구조화되었다¹¹⁾고 보았다. 불교종립대학에서 이루어지는 필수 불교교양강좌는 이렇게 부정적으로 구조화된 불교의 이미지와 가치를 재구조화 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다.

불교를 종교로 가진 학생이든 타종교를 종교로 가진 학생이든 종교를 갖지 않은 학생이든 신입생이면 모두가 불교 이론수업과 명상 수업을 세 번(기본적으로 2학기 이상)이상 수강해야 한다.

다음은 수업을 들은 학생들의 피드백 중 불교인식과 관련된 내용이다.

“불교에 대해 평소 관심이 없었는데 교수님 덕분에 불교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다.”

“불교에 대한 지식들을 잘 가르쳐 주신다.”

“‘D’대학교는 불교대학이고 나는 종교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종교이든 익숙하지 않는데 불교에 관련하여 많은 것을 알게 해주셨고, 지친 심신을 달랠 수 있었던 좋은 수업이었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좋았다고 느낄 정도에 불교에 대한 좋은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불교에 대해 멀고 어렵게만 느껴졌지만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수업이었다.”

“덕분에 불교 공부가 재밌어졌다.”

불교를 종교로 가진 학생의 경우 불교를 더 정확하게 알게 되는 기회가 되었고 관심이 없었던 학생들의 경우 수업을 통해 불교에 재미와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고 한다.

11) 윤세원, 「현대사회의 병리적 작동원리와 불교의 역할」 『사회사상과 문화』 제 25집, 2012, 114쪽-115쪽.

이는 종립대학의 종교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초두효과, 첫 인상형성에서 그 의미를 살펴볼 수 있다. 초두효과란 처음에 제시된 정보가 나중에 제시된 정보보다 기억에 훨씬 더 큰 영향을 주는 현상을 의미하며 뇌가 정보를 받아들일 때 본능적으로 일관성 있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나타난다.¹²⁾ 이로 인해 처음 제시된 정보는 이후에 정보를 해석하는 해석 틀로써 작동하게 된다. 초두효과의 가장 대표적인 적용사례가 첫인상형성이다. 첫인상은 순식간에 맞이하는 지각의 경험이자, 그것이 야기하는 가치 평가의 결과를 포함한다. 첫인상으로 결정되는 가치 판단과 평가는 훗날 완전히 뒤바뀌거나, 약간 수정되기도 하지만 대개 편견이라는 이름으로 오랫동안 지속된다.¹³⁾ 즉 한 개인이 처음 경험하는 정보들은 그가 이후에 경험할 것들의 성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이 됨으로써 처음에 어떤 정보에 노출되는가가 한 개인의 삶에서 중요하게 된다.

불교종립대학 신입생이 처음 접하는 불교의 이론과 실체는 불교에 대한 첫인상을 형성하여 이후 불교에 대한 학생들의 의사결정에 그 첫인상이 무의식적으로 관여하게 되는 원리이다. 따라서 신입생들에게 처음으로 들어가는 정보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와 관련된 교육목표를 잘 구성하고 원하는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어 학생들이 제대로 첫인상을 형성하는지 교육과정과 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수자 요인들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야 한다.

2) 삶의 지혜를 얻었다

수강생들은 자신들이 삶 속에서 경험하는 괴로움, 고통, 번뇌 등의 본질과 특성, 고통의 원인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고집멸도, 사성제)을 배우게 된다. 이로써 수강하기 전과 후에 삶을 바라보는 방식이나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또한 마음챙김은 내부의 어떤 것을 강제적으로 바꾸거나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몸과 마음을 관찰하면서 체험하게 하여 있는 그대로를 비판단적으로 수용하게 하는 것이다. 마음챙김은 생각, 감정, 감각 등이 실재가 아니라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분명한 자각’을 얻게 된다. 일상생활에서 마음챙김은 자기 자신의 관점이 아니라 탈 중심적 관점으로 자각하게 하므로, 나의 욕구와 나의 생각이 ‘나’가 아님을 자각할 수 있다.¹⁴⁾

12) 나무위키 웹사이트, <https://namu.wiki/w/초두효과> (검색일: 2018. 12. 17).

13) 김성호, 「이미지의 첫인상,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효용성」 『한국영상학회 논문집』 제16권, 2018, 20쪽.

14) 박미옥, 고진호, 「마음챙김의 교육적 적용에 관한 연구」 『종교교육학연구』 제49권, 2015, 107쪽.

다음은 불교교양강좌 수강생들의 피드백 중 삶(인생)과 관련된 내용들이다.

“불교에 관한 전반적인 것부터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르고 살았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고찰할 수 있었던 좋은 수업이었다.”

“교수님 덕분에 진짜 인생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되었다.”

“내 인생관을 다시 설계하게 되는 귀한 수업이었다.”

“저희에게 있어서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이었다.”

“단순한 강의를 넘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삶의 지혜를 알려주셔서 인상적이었다.”

불교이론 강의에서는 마음의 종류와 경지, 작동원리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12연기, ‘공’사상, 사성제, 삼법인 등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론과 각 이론을 실생활에 적용한 예를 중심으로 수업이 이루어진다. 또한 불교실제 강의에서는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원리를 이해하고 실제 명상을 통해 체험하는 수업을 하게 된다. 초기불교에서 괴로움은 무상(無常)과 무아(無我)를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다고 보았다. 무상의 인식을 위해 모든 현상을 해체하여 분석해 보고 인식과 정서의 변화를 위해 마음의 구조를 파악해야 한다. 마음은 찰나생, 찰나멸 하는 끊임없는 흐름(心相續)으로 그것은 한 순간 일어나 대상을 아는 기능을 수행하자마자 사라진다. 조건에 따라 일어나 조건이 사라지면 바로 사라지고 그 작용은 대상이 존재해야만 발생한다.¹⁵⁾고 하였다. 수강생들은 이론으로 이해하고 실제로 실천하는 경험을 통해 그동안 습관적으로 반복되던 삶의 패턴을 자각하게 되고 자신과 세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된다.

3) 인성에 도움이 되었다

불교에서도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지켜야 할 계율이 많다. 불교는 수행의 종교이기 때문에 일상의 삶 속에서 계율을 지키며 실천하는 것이 바로 종교이며 수행이다. 불교의 계율은 ‘갑갑함’, ‘속박’같은 이미지를 갖기 쉽다. 하지만 계율이 의미하는 것은 계율을 지키라는 정언적 명령이 아닌, 계율을 거울삼아 자신을 철저하게 비추어 도리켜 보는데(廻光返照) 있다고 생각한다.¹⁶⁾ 즉 자신의 생각, 느낌, 행위들을 늘 깨어서 지켜보며 반성하고 성찰하고 계율에 맞는 삶을 실천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은 바로 인성교육의 시작이다.

15) 대림스님, 각목스님 역, 『아비담마 길라잡이(상)』 (울산: 초기불전연구원, 2002), 64쪽.

16) 이필원, 「초기불교의 인성교육적 특성 고찰」 『불교학보』 제76권, 2016, 53쪽.

다음은 불교교양강좌를 수강한 학생들의 피드백 중 인성과 관련된 수강생들의 피드백이다.

“명상을 강의시간을 하시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해 주셨다.”

“학생들 개개인에게도 인성이 향상되리라 생각한다.”

“명상을 하면서 인내를 기를 수 있었다.”

“교수님 말씀 깊이 새기어 앞으로도 부단히 노력하겠다.”

“불교와 인간은 인성교육에 매우 유익 하였다...”

명상은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자기체험의 과정을 통해 자신의 세계에 대한 자각이 확대되고 심화되어 연결성을 향상시킨다. 연결은 자기조절을 강화시키고 자기조절은 ‘균형’과 ‘안정’을 이끌어 모든 상황에서 보다 적절하게 대응하게 한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수강생들은 환경과 적절히 소통하면서 성장하게 되고 환경과 자신을 조화시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전인적 인간으로 발달할 수 있다.

4) 정서적으로 안정되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명상 기법은 원래 불교에서 부처가 정각을 얻을 때 활용한 수행방법이다. 『청정도론』에서는 삼매를 ‘유익한 마음의 하나 됨(善心一境性)’이라고 하고 삼매에 든다는 것은 마음과 마음부수들을 하나의 대상에 고르고 바르게 모으고 둔다는 뜻¹⁷⁾이라고 하였다. 불교수행은 명상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여 해탈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수행방법 중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방법이 마음챙김 명상인데 사마타 명상과 위빠사나 명상으로 이루어진다.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빨리 습관적으로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특정한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얼마나 쉽게 사물과 자신에 대한 견해가 과거에 획득한 선입견, 종교 등에 의해 형성되었는가를 알아차리는 것이 알아차림 명상이다.

다음은 불교교양강좌 수강 후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학생들의 피드백 내용이다.

“불교와 인간 수업을 듣고 조금 더 마음이 편해진 거 같다.”

“선을 통하여 마음의 안정을 얻어 나의 심리를 잘 다스릴 수 있게 되었다.”

17) 붓다고사 스님, 대림스님 역, 『청정도론1』 (울산 :초기불전연구원, 2004), 268쪽.

“바쁜 학교생활 속에 짧은 시간이지만 숨 돌릴 수 있는 수업이었다. 평소에도 명상하는 시간을 가지곤 한다.”

MBSR(Mindfulness-Based Stress Reduction)의 창시자 카밧진 박사는 자신과 세계를 전체성과 연결성의 두 관점에서 바로 볼 수 있어야 치유가 일어난다고 밝혔다. “치유는 치료가 아니라 견해의 변화이다. 당신에게 내재해 있는 전체성을 아는 동시에 다른 모든 존재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때 자기 자신의 내부의 평화를 느낄 수 있다.”¹⁸⁾

불교교양강좌의 이론과 명상의 실천을 통해 수강생들은 다양한 내적, 외적 작용들이 단지 조건에 따라 발생하고 사라지는 일시적인 현상임을 깨닫게 된다. 무상과 연기법을 배우고 실제에 적용하는 경험을 통해 자아를 포함한 모든 현상이 변화하므로 영원히 고정된 실체는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현상은 연기법 속에서 상호 연결된다는 통찰이 일어나고 이는 심리적 해방과 안정을 가져오게 된다. 급변하는 세계와 사회적 환경 속에서 긴장과 불안에 고통받던 수강생들이 무아법, 공사상, 연기법 등의 이론적 지식과 법당이라는 상징적인 공간 속에서 이루어진 명상을 통해 느끼는 해방감과 안정감은 수강생들의 삶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5) 행복해졌다

Diener, Suh, Kim-Preieto, Biswas-Diener와 Tay(2010)는 한국이 소득측면에서는 전 세계 상위권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물질주의 때문에 한국이 행복하지 못하다고 하였으며 경제수준이 낮은 짐바브웨 사람들보다 더 물질적 풍요를 중요시 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¹⁹⁾ 물질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목마르게 되는 존재라고들 한다. 결코 만족을 모르는 존재라고도 한다. 불교에서는 무시무종(無始無終)으로 우주가 성주괴공을 되풀이 하고 있다고 가르친다. 따라서 모든 사물은 생주이멸(生住異滅)하고 생명을 가진 중생은 생로병사하는 운명을 거스를 수 없다. 이처럼 무상함을 깨닫지 못한 무지에 의해 무아를 깨닫지 못해 ‘나’라는 실체가 있어 뭔가를 소유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이로써 더 좋은 것, 더 많이, 더 높은 곳에 가고자 하는 욕망을 품게 되는 것이다.

다음은 불교교양강좌 수강생의 행복감과 관련된 피드백 내용이다.

18) Kabat-Zinn, 『Full Catastrophe Living: Using Your Body and Mind to Face Stress Pain and Illness』 New York: Delacorte, 1990, p.184.

19) 구재선, 서은국, 「왜 한국 대학생이 미국 대학생보다 불행한가? 상대적 가치, 사회적 지원, 사회비교의 영향」 『한국심리학회: 사회 및 성격』 제29권, 제4호, 2015, 64쪽 재인용.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구나’, ‘졌지’, ‘감사’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좋지 못한 일이 생겨도 스스로 마음을 가라앉히면 큰 화로 이어지지 않고 잘 해결된다는 가르침이었다. 나는 교수님의 조언을 본받아 사소한 문제에도 짜증을 내던 행동을 고쳤고, 그 결과 마음이 평화로워져 평소보다 더 컨디션도 좋아지고, 사람들에게도 상냥하게 대할 수 있게 되었다.”

“오늘 나에게 행운이 있을 것이다”라고 아침마다 되뇌이면 정말 하루가 행복해 진다고 교수님께서 알려 주신 것을 매일매일 실천했다. 그래도 힘든 하루가 찾아오겠지...하면서도 아침마다 되뇌었는데 정말로 한 학기동안 마음 아픔 없이 하루가 정말 정말 행복했다. 가르쳐주신 것 무궁하게 쓸 것이고 가르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명상하는 시간이 나에게 많은 행복감을 주었다. 지금도 명상을 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영어의 ‘health’라는 말은 ‘whole’이란 의미이다. 전체(whole)는 시스템이나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부분의 상호연계이며 통합이며 온전함이다.²⁰⁾ 어느 한 영역에 뛰어나고 나머지 영역이 온전하지 않다면 결코 건강하다고 할 수 없다. 불교명상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생각하는 것, 습관적인 것, 나쁜 습관을 바꾸는데 도움이 되어 자기통제를 잘 할 수 있게 한다.

오늘 나에게 행운이 있을 것이다라는 주문을 외우는 것은 순간순간 행동을 선택할 때 따르게 되는 가이드라인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 수강생들은 수업시간에 다뤘던 다양한 활동들을 매일 매일의 일상에 적용하였고 자신이 간절히 소망하는 대로 세상이 펼쳐지는 경험을 하며 세상은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펼쳐지게 된다는 ‘唯識無境’의 개념을 서서히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학생들은 세상을 타하기 전에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였고 행운을 바라기 전에 행운이 올 수 있는 방식으로 행동하려 노력하게 되는 변화가 나타났다. 삶의 통제권이 외부적인 조건이나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에게, 자신의 내적 조건에 있음을 깨달은 학생들은 세상, 미래, 타인에 대한 불안이 감소되고 평안과 행복감이 찾아오는 것으로 보인다.

20) 안양규, 「불교 교학에서 본 MBSR(명상에 기반을 둔 스트레스 완화)의 치유 원리」 『불교학보』 제62권, 2012, 413쪽 재인용.

2. 불교교양강좌에 주는 시사점

불교종립대학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통교양 두 교과목에 대한 수강생들의 평가를 근거로 불안과 좌절 속에 힘들어하는 대학 신입생에게 제공해야할 불교교육의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불교교육의 강의 방식은 강의와 체험이 모두 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수업방식으로 진행됨으로써 ‘인생의 참 지혜를 배우는 경험’, ‘즐겁고 보람된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PPT자료나 동영상 자료는 기본이고 최근 유행하는 스마트 앱을 통한 수업 진행이나 SNS를 활용한 상호작용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불교교육이 재미있는 체험, 즐겁고 마음이 서로 소통하는 체험으로 기억되게 해야 한다. 또한 불교의 수행 공간인 ‘법당’이 학생들에게 주는 ‘휴식’, ‘힐링’, ‘성찰’, ‘보듬음’ 등의 의미를 적극 활용하여 현대 생활의 고단함을 감소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새로운 안식처의 개념으로 재탄생하는 계기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수업 내용 측면에서는 불교적 교리를 단순히 과거의 화석화된 자료가 아닌 현대적 맥락에서 재해석한 실천적 자료로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의 실제 삶과 함께 호흡하는 살아있는 멘토로, 함께 성장하는 도반으로, 지향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교수자의 요인으로, 불교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수행을 겸비한 교수님의 성실하고 차분한, 그러면서도 따뜻함과 친절함은 학생들에게 사막의 오아시스와도 같은 존재이다. 따라서 아무리 좋은 종교교육 교과목이라도 가르치는 교수자의 인품과 교수역량이 기본이 되어야 함을 숙지하여 불교교육 담당교원은 인격도야와 역량강화에 힘써야 할 것이다.

넷째, 불교교육은 1학기, 또는 1,2학기 듣고 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단발성의 교과목이 아니라 수업에서 배운 내용들을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여 불교적 사고체계와 불교적 생활이 ‘짬’이 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경험을 제공 받는 학생들은 자신들이 살아내야 할 팍팍한 미래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V. 나가는 말

지금까지 대학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불교교양강좌의 운영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불교교양교육은 수업방식과 수업내용, 교수의 특성들을 잘 고려하여 최상의 수업이 제공 되어졌을 때 대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불교교육이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어떻게 제시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불교대학 입학 후 1년 동안 필수적으로 수강하게 되는 불교교양 강좌를 통해 따뜻하고 성실하며 불교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충실히 갖춘 교수에 의해 진행되는 불교이론 강의, 불교교리가 명상과 선을 통해 구현되는 실천수행과 효과적으로 어우러진 불교실제 강의를 접한 학생들은 불교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을 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되는 긍정적인 경험을 하였다. 또한 수강생들이 학습목표를 충분히 성취하고 ‘긍정적인 불교’, ‘존경하는 불교 교수 상’, ‘거룩한 스님 상’을 각인시키는 결과를 얻는 것은 불교종립대학에서 불교교양 강좌의 가장 큰 존재이유일 것이다. 따라서 강의 방식과 강의 내용, 교수 요인, 실생활 적용 전략까지 면밀히 계획하여 잘 구성된 불교교육의 제시라는 교육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가 교육의 가장 핵심적인 성공요인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은 분명 정량적인 결과를 제시하지 못한 한계점이 존재하지만 직접 수업에 참여한 수강생들이 강좌에 대해 평가한 서술형 문항을 중심으로 불교교양 강좌에 대한 평가와 소감을 분석하여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참고문헌

- 구재선, 서은국, 「왜 한국 대학생이 미국 대학생보다 불행한가? 상대적 가치, 사회적 지원, 사회비교의 영향」 『한국심리학회: 사회 및 성격』 제29권, 제4호(서울: 한국심리학회, 2015).
- 김성호, 「이미지의 첫인상,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효용성」 『한국영상학회 논문집』 제16권(한국영상학회, 2018).
- 김용표, 「불교계 종립학교와 종교교재-불교교육과 보편적 종교교육과의 순환적 교육과정 구성」 『종교교육학연구』 제22권(서울: 종교교육학회, 2006).
- 김용정, 「대학의 교양교육과 종교」 『종교교육학연구』 제12권(서울: 종교교육학회, 2001).
- 나무위키 웹사이트. <https://namu.wiki/w/초두효과> (검색일: 2018. 12. 17).
- 대림스님, 각묵스님 역, 『아비담마 길라잡이(상)』 (울산: 초기불전연구원, 2002)
- 박미옥, 고진호, 「마음챙김의 교육적 적용에 관한 연구」 『종교교육학연구』 제49권(서울

- : 한국종교교육학회, 2015).
- 박희중, 「원불교에서의 종교교육과 인권」 『종교교육학연구』 제39권(서울 : 한국종교교육학회, 2012).
- 붓다고사 스님, 대림스님 역, 『청정도론1』 (울산 : 초기불전연구원, 2004)
- 송지은, 이광호, 「대학 지방캠퍼스 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청소년학 연구』 제24권, 제4호(한국청소년학회, 2017).
- 신태진, 「수도권 소재 종합대학 지방캠퍼스 대학생들의 스트레스 요인 및 유형에 대한 조사연구」 『연세대학교 교육연구소 보고서』 제1권(서울 : 연세대학교 교육연구소, 2002).
- 안양규, 「불교 교학에서 본 MBSR(명상에 기반을 둔 스트레스 완화)의 치유 원리」 『불교학보』 제62권(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2012).
- 윤세원, 「현대사회의 병리적 작동원리와 불교의 역할」 『사회사상과 문화』 제25집(동양사회사상학회, 2012).
- 이필원, 「초기불교의 인성교육적 특성 고찰」 『불교학보』 제76권(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2016).
- 정귀연 · 김세곤, 「양극화 시대 불교종립대학 신입생 불교교육의 역할과 방향」 『종교교육학연구』 제53권(서울 : 한국종교교육학회, 2017).
- 정진홍, 「제 7차 교육과정과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 제13권(서울 : 한국종교교육학회, 2001).
- David G· Myers, C·Nathan DeWall 지음, 신현정, 김비아 옮김, 『마이어스의 심리학』, (서울 : 시그마프레스, 2015).
- Kabat-Zinn, 『Full Catastrophe Living: Using Your Body and Mind to Face Stress Pain and Illness』 New York: Delacorte, 1990

원고접수일: 2019년 1월 22일 / 심사일: 2019년 1월 26일 / 게재확정일: 2019년 2월 14일

연구자 소개: 정귀연

- ① 전공: 인도철학, 유아심리, 심리학 / 소속과 직위: 동국대학교(경주) 파라미타칼리지 초빙교수
 - ② 관심영역: 불교학, 교육학
 - ③ 주요논저: 미술치료사의 역전이 연구
 - ④ E-mail: cgy-33@hanmail.net
-

Abstract

Study on Buddhist Liberal Arts Course for Freshman Students at
Buddhist sectarian University Campus

Jeong, Kwiyeon
Dongguk University(gyeongju)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urrent state of Buddhist essential cultures that are conducted for freshman students at the 'D' university, a Buddhist school, and to analyze the evaluation of the students who actually took classes. It is to suggest the direction of Buddhism culture lecture.

This study suggests how Buddhist education should play a role and should be presented for the healthy growth of college students. In other words, students who attended the Buddhist lecture course, which is an essential course for one year after entering the Buddhist College, not only deepened their understanding of Buddhism but also had a positive and relaxed body and mind. It is also the reason why Buddhist scholarship is the most important reason why Buddhist scholars will achieve the goal of learning well and achieve positive Buddhism, honorable Buddhist priesthood, and holy priesthood.

Therefore, it was once again confirmed that the most essential element of education, which is the presentation of well-structured Buddhist education, is the most important success factor of education by carefully planning the lecture method, lecture contents, teaching factors, and real life application strategies.

Key word: Buddhist schools, local campus, university freshmen, Buddhist lectures